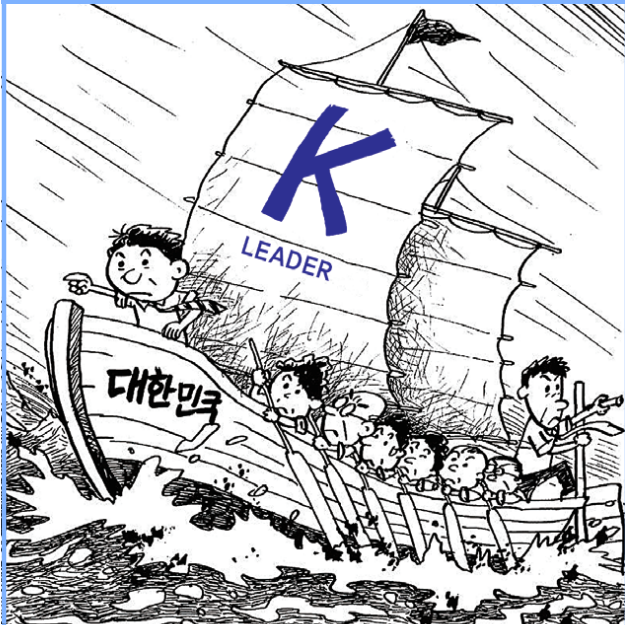


알립니다



‘글로벌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코리아 글로벌리더대상 공모

해외동포, 기업인, 한류기업, 지자체 등 대상
국립국제교육원·KCOC 후원...10월 26일 시상



스포츠동아는 ‘2021 코리아글로벌리더대상 (Korea Global Leader Awards)’ 후보를 공모합니다.

코리아글로벌리더대상은 K팝, K방역, K뷰티, K이코노미 등 한류의 전방위 영역 확장을 선도하는 국·내외 글로벌 리더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코리아글로벌리더대상은 ▲국제교류리더 ▲스포츠리더 ▲사회공헌리더 ▲기술혁신리더 ▲문화리더 ▲교육리더 ▲학술리더 ▲연구개발리더 ▲건강리더 ▲기타 특별분야에 걸쳐 공모합니다.

응모 자격은 한류를 이끄는 ▲해외동포 및 기업인 ▲유공 체육인 ▲한류 기업(인) 또는 개인 ▲지방자치단체장 ▲한류 브랜드 등입니다.

후보자는 ▲응모신청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적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개별 통보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신청 마감 : 2021년 10월 12일(화)
- 접수 : sol@donga.com
- 시상식 : 2021년 10월 26일(화) (장소는 추후 공지)
- 문의 : 코리아글로벌리더대상위원회 (02-361-1616)
- 주최 : 스포츠동아·코리아글로벌리더대상위원회
- 주관 : 스포엑스컴
- 후원 : 국립국제교육원·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

▶‘임성재, 투어 챔피언십 출전’ 1면에서 이어집니다

6차 연장까지 펼쳐진 캔들레이와 디섬보의 치열한 우승 경쟁이 불만했다. 3라운드까지 18언더파 공동 선두였던 둘은 4라운드에서도 얹쳐락뒤치락하면서 우열을 가리지 못했고, 결국 연장에 돌입했다. 18번 홀과 17번 홀을 오가며 펼쳐진 서든 데스에서 디섬보는 1, 2차 연장에서 찾아온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패착이 됐다. 4차 연장까지 둘 모두 파를 기록했고 17번 홀 5차 연장에선 나란히 버디를 잡으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가 연출됐다.

마침내 18번 6차 연장에서 캔들레이가 5m 넘는 버디 퍼트를 홀컵에 떨어뜨려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 10월 조조 챔피언십, 올해 6월 메모리얼 토너먼트에 이어 시즌 3승을 수확한 캔들레이는 통산 5승을 기록하면서 우승상금 171만 달러(19억9000만 원)를 손에 넣었다. 페덱스컵 랭킹도 4위에서 1위로 끌어올리며 투어 챔피언십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BMW 챔피언십 최종 톱5 (파72)			
이름	스코어	라운드별 타수	
우승	패트릭 캔들레이(미국)	27언더파 261타	66-63-66-66
준우승	브라이슨 디섬보(미국)		68-60-67-66
3위	임성재	23언더파 265타	67-65-66-67
4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22언더파 266타	64-70-65-67
5위	에릭 판 루엔(남아공)	21언더파 268타	67-68-67-65

* 캔들레이, 디섬보와 6차 연장 끝 우승 * 이강훈 17언더파 공동 12위, 김시우 12언더파 공동 29위

도쿄패럴림픽 남자탁구 금·은·동 싸늘이

세계랭킹 1위 주영대, 한국 첫 금메달

〈탁구 남자단식(TT1)〉

김현욱과 4세트 접전 끝 3-1 환호
한때 체육교사 꿈꿨던 스포츠맨
교통사고 장애 후 탁구로 재할
인천AG 첫 태극마크...리우선銀



김현욱, 주영대, 남기원(왼쪽부터)이 30일 도쿄 패럴림픽 탁구 남자단식에서 각각 은메달, 금메달, 동메달을 따낸 뒤 태극기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도쿄 | 사진공동취재단



도쿄 하늘에 태극기 3개가 나란히 펄럭였다. 2020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한 남자탁구대표팀 주영대(48·경남장애인체육회), 김현욱(26·울산장애인체육회), 남기원(55·광주시청)이 단식(스포츠등급 TT1)에서 금, 은, 동메달을 휩쓸었다. 패럴림픽 장애인탁구 한 등급에서 한국의 금, 은, 동메달 싸늘이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대회 은메달리스트인 주영대는 5년 만에 금메달의 꿈을 이뤘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기도 하다.

세계랭킹 1위 주영대는 30일 도쿄 메트로폴리탄체육관에서 열린 도쿄패럴림픽 탁구 남자단식(TT1) 결승에서 5위 김현욱을 세트스코어 3-1(11-8 13-11 2-11 12-10)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주영대가 30일 도쿄 메트로폴리탄체육관에서 열린 도쿄패럴림픽 탁구 남자단식 결승전에서 김현욱과 맞붙어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해 금메달을 따냈다. 도쿄 | 사진공동취재단

이미 동메달을 확정된 남기원이 관중석에서 지켜본 가운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 주영대가 1, 2세트를 연거푸 따내면서 승부가 기우는 듯했지만, 김현욱이 3세트 들어 적극적 공격과 로빙 플레이를 앞세워 11-2로 승리하며 반격에 성공했다.

4세트도 대접전 양상이었다. 6-6, 7-7, 8-8, 9-9로 거듭 동점 상황이 연출됐다. 이어 김현욱이 먼저 매치 포인트

에 이르렀지만, 주영대가 곧장 반격해 10-10 듀스를 만든 끝에 12-10으로 세트를 마감하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어릴 때부터 스포츠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주영대는 체육교사를 꿈꾸며 경상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했으나, 1994년 여름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다. 이후 컴퓨터 웹디자인으로 일하다 2008년 복지관에서 재활운동으로 탁구를 시작하며 스포츠와 다시 연을 맺었다.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태극마크를 달았고, 경남장애인탁구협회 사무국장 등 장애인스포츠 행정가로도 활동했다.

은메달리스트 김현욱은 2011년 낙상 사고 후 지인의 추천으로 탁구를 시작했다. 그의 첫 패럴림픽 도전인 이번 대회에서 예선부터 4강까지 4경기에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을 뽐내며 결승까지 올랐다.

최용석 기자·도쿄패럴림픽 공동취재단

사격 동메달 박진호 “이젠 색깔을 바꿔보겠다”

〈남자 10m 공기소총 입사 SH1〉

25세때 척수손상...사격으로 재기
패럴림픽 첫 메달 “남은 종목 최선”

박진호(44·청주시청)가 2020도쿄패럴림픽에서 사격 선수단에 첫 번째 메달을 안겼다. 자신의 첫 패럴림픽 메달이기도 하다.

박진호는 30일 도쿄 아사카사격장에서 열린 도쿄패럴림픽 사격 남자 10m 공기소총 입사 SH1 결승에서 224.5점을 쏘 동차오(246.4점·중국), 안드리 로렌코(245.1점·우크라이나)에 이어 동

메달을 목에 걸었다. 처음 출전했던 2016리우데자네이루대회에선 메달을 따지 못했던 그는 “그동안 다른 대회에선 메달이 다 나왔는데 패럴림픽만 없었어. 이제 (동메달이) 나왔으니 색깔을 슬슬 바꿔보아겠다”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값진 동메달이지만, 아쉬움이 남는 결선이었다. 예선(총 60발)에서 631.3점으로 세계기록과 패럴림픽기록을 모두 경신하며 1위로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결선에선 총 24발을 쏘는데, 11번째 총알부터 2발마다 최저점

선수를 1명씩 탈락시키는 ‘서든데스’ 방식이 적용됐다. 박진호는 “예선에서 세계기록이 나왔지만 결선 초반에 그걸 이어가지 못했다”며 “조금 감을 잡으니까 늦었더라”고 설명했다.

어려서부터 빼어난 운동신경으로 여러 스포츠를 즐겼던 박진호는 2002년 낙상으로 크게 다쳤다. 척수손상으로 하지가 마비됐다. 헬기왕성한 25세 때였다. 그를 다시 일어세게 한 것도 결국 스포츠, 그 중 사격이었다.

박진호는 혼성 10m 공기소총 복사(9월 1일), 50m 소총 3자세(3일), 혼성



박진호가 30일 도쿄 아사카사격장에서 열린 도쿄패럴림픽 사격 남자 10m 공기소총 입사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사진제공 | 대한장애인체육회

50m 소총 복사(5일)에서 추가로 메달을 노린다. 그는 “남은 세 종목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산 기자·도쿄패럴림픽 공동취재단

‘한국 14번째 EPL선수’ 황희찬, 뜨거운 울버햄턴 입단식

맨유 흥경기 전 팬들 박수 받으며 인사
단장 “공격 옵션 다양성 넣어줄 선수”
EPL 경쟁력 입증 맨 뎀투호 큰 소득도

황희찬(25)이 울버햄턴 원더러스 팬들의 환대 속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입성했다. 파울루 벤투 국가대표팀 감독의 입가에 미소가 번질 만한 소식이다.

황희찬은 30일(한국시간)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022시즌 EPL 3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홈경기에 앞서 울버햄턴 입단식을 치렀다. 등번호 ‘26’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들어서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국가대표 공격수 황

희찬과 1년 임대 계약을 맺었다. 임대 후 완전이적 조항도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그는 역대 14번째 한국인 EPL 선수가 됐고, 설기현 경남FC 감독 이후 2번째로 울버햄턴에 입단한 한국선수가 됐다.

황희찬은 레드불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지난해 RB라이프치히(독일)로 이적했지만 팀 적응에 애를 먹었고, 부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겹치며 후보 선수로 밀려났다. 새 시즌에도 입지에 큰 변화가 없자, 여름이적시장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울버햄턴이 내민 손을 잡고 EPL로 옮겼다.

울버햄턴에선 좀더 많은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아다마 트라오레가 폭발적 드리블

로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한 탓에 올 시즌 개막 후 3경기에서 아직 골이 없다. “모든 공격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 공격 옵션에 다양성을 넣어줄 선수”라는 스콧 셀라스 단장의 평가에서 황희찬에 대한 기대를 짐작할 수 있다.

황희찬의 EPL 입성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축구에 또 플러스 요인이다. 소속팀에서 활약이 아쉬웠던 그는 ‘뎀투호’에서도 완벽한 주전은 아니다. 올해 6월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연전 당시 최약체 스리랑카를 상대로만 선발 출전했을 뿐 인상적 활약은 없었다. 그가 EPL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면 손흥민(29·토트넘)에게 집중되는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황희찬이 30일(한국시간)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홈경기에 앞서 열린 입단식 도중 울버햄턴 팬들에게 양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울버햄턴 원더러스 페이스북

황희찬은 9월부터 시작되는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 나서는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느라 다른 선수들보다 하루 늦은 31일 대표팀에 합류한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